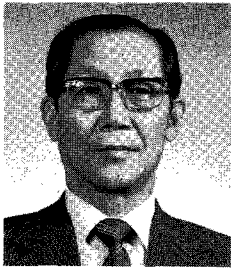


세계화 시대에 대처할 수 있는 양계인의 자세



오 봉 국

· 대한양계협회 상임고문
· '95양계박람회 운영위원장

더 거세고 세계는 단일시장으로 전환되고 있다.

또한 축산물의 대부분은 1997년 7월부터 완전개방이 된다. 이와같이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 하에서 한국 양계산업이 생존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누구도 이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무엇 보다도 중요한 것은 생산자 자신이 살아남고자 하는 투지와 각오가 필요하며, 둘째는 축산물의 생산비 절감과 품질의 고급화로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것이 당면과제라고 하겠다.

이제 우리는 원하는 원치 않든 시장은 개방되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값싸고 좋은 물건은 세계 모든 나라에서 유리

1. 머리말

1995년 1월부터 세계무역기구(WTO)체제의 출범에 따라 이제는 국경없는 무한경쟁 시대로 돌입하게 되었다. 따라서 수입자유화의 물결은

한 시장으로 흘러 들어오게 되었다. 우리가 생산하는 달걀과 닭고기는 우리 소비자가 좋아하는 고품질의 안전성 있는 물건이어야 하고 가격은 수입품과 대등한 값으로 공급되는 데서 한국 양계산업의 살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성취하는데는 급변하는 시대적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인식의 변화와 경영기술의 개선이 필요하며 양계산업과 관련되는 모든 분야에서 공동의 노력과 협조로써 어려운 난국을 타개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 시대는 변화의 시대이다. 개방화 국제화 시대에서 이제는 세계화 시대로 변화되고 있다. 이제 기존의 생각과 기존의 방법으로는 안 되는 시대가 온 것이다.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새로운 생각, 새로운 방법, 새로운 조직과 질서가 고안되어야 할 것이다. 시대적 변화를 가장 빨리 그리고 비교 검토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고 전달해 주는 행사가 바로 “양계박람회”인 것이다.

미국은 매년 1월 중순에 조지아주 아틀란타 시에서 개최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에서 새로운 생각, 새로운 방법, 새로운 상품을 찾기 위해 수만명이 모여 들어 참관하고 있으며 유럽 화란에서는 매 2년마다, 독일에서도 매 2년마다 서로 개최하는 년도를 달리하여 중복되지 않게 개최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유럽의 영국, 스페인, 프랑스도 양계박람회를 1~2년 간격으로 개최하여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는 양계산업을 육성·발전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한양계협회에서 1991년도부터 매 2년마다 양계박람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금년 8월 23일부터 4일간 한국종합전시장(KOEX)에서 제3차 양계박람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우리는 이러한 기회를 통하여 세계에서 새로 개발한 기자재와 시설을 볼 수 있으며 양계 선진국에서 채란과 육계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이용하고 있는 시설과 방법을 관찰하며, 내가 필요로 하는 물건을 회사별로 비교·검토할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다. 아울러 변화하는 시대의 새로운 정보를 접하고 교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하여 양계농가 하나 하나가 국제경쟁력을 가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2. 한국 양계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우리나라 양계산업의 현황을 살피고 양계산업이 발전하는데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한다.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적절한 해결방안이 곧 국제경쟁력을 갖추게 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1) 경영규모가 영세하여 경영효율이 낮다.

1994년말 현재 양계농가는 약 19만호이며 닭 사육수는 8천만수로써 농가당 사육수는 421수이다. 1만수이상 사육하는 전업양계규모 농가는 불과 2,700호로써 전체 닭사육농가의 1.42%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부업형태의 경영규모에서는 생산성과 수익성이 낮아 생산비도 높고 품질도 떨어지게 된다.

다행히 정부에서는 20,000수이상 사육하는 전업규모농가 육성을 위해 매년 막대한 투융자 사업을 통하여 사육기반조성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우리나라 양계산업의 닭사육 규모별 수수를 살펴보면 10,000수이상 사육하는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닭 사육수는 6,600만수로 전체 닭수수의 82%를 차지하고 있어서 점차로

전업 내지는 기업화 단계로 정착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빠른 시일안에 양계산업의 경영규모 확대로 경영효율을 높이고 현대화 시설의 개선으로 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하겠다.

(2) 유능한 영농후계자가 부족하다.

양계산업도 3D업종의 하나이며 장래가 불투명한 사업으로 분류되어 유능한 양계경영자가 기피하고 있다. 양계도 농촌 부녀자와 노령화 인력에 의하여 경영되고 있어서 노동효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경영개선이 어렵게 되어 있다. 앞으로의 양계사업은 기술집약적인 과학영농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시설자동화와 병행하여 고급인력이 필요하다.

특히 급변하는 시대적 변화에 적응하여 과학영농을 통한 원가 절감과 생산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컴퓨터를 사용할 줄 알며, 시장정보의 활용과 생산물의 부가가치 창출을 생각할 줄 아는 경영인이 필요하다.

(3) 생산자의 지구노력과 협동심이 약하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은 의타심을 버리고 굳건한 의지와 지구 노력으로 남이 못하는 일을 해내는 사람이 성공하고 있다. 우리 양계기는 타축산업종에 비하여 정부지원이 적고 단결도 잘 되는 편이나 아직도 정부지원을 크게 바라며 생산물의 가격조절을 요구하는 등 의타심이 강하다.

또한 서로 도우며 더불어 살아가는 공생, 공영하는 협동심이 부족하여 대정부 교섭력이나 시장 교섭력이 약하여 정부로부터 양계사업에 대한 지원사업도 제대로 얻어내지 못하며 달걀, 닭고기의 제값 받기 운동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양계가의 홀로서기와 자생력 강화가 이기주의로 흘러가서도 안되려니와 협동심을 기르는데 장애요소가 되어서도 안된다.

(4) 유통구조가 복잡하여 비효율적이며 복합산업화가 안되어 수익성이 낮다.

양계농가는 지금까지 생산만 하면 된다는 인식하에 생산, 유통, 소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비용절감과 품질관리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큰 손해를 보아왔다. 앞으로는 내가 생산한 물건이 소비자로부터 환영받는 달걀과 닭고기가 되어야 하며 신선하고 안전한 물건으로 유통경로를 최대한 단순화 하여 빠른 시간안에 소비자에게 유통비용을 절감한 값으로 공급시켜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생산자의 자율성이 부족하여 생산물에 대한 가격조절이나 시장 교섭력이 약하여 정당한 값을 받지 못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생산자가 조합이나 협업단체와 같은 조직을 만들어 내가 생산한 물건을 2차, 3차가공을 해서 부가가치를 높이고 직판장을 설치하여 유통시키는 복합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5) 수입개방에 대비한 철저한 검역과 위생관리 체제가 미약하다.

양계산물은 '97. 7. 1부터 완전개방이 된다. 여기에 대비한 수입축산물의 안전성과 철저한 검역 그리고 방역대책이 시급하다. 종계수입을 비롯하여 축산물의 수입은 우리나라에 없던 새로운 질병의 발생이 우려되며 매년 질병피해로 인해 큰 손해를 보고 있다. 특히 수입 축산물의 안전성은 곧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검역과 더불어 위생관리 체계구축에 시설, 장

비 그리고 인력의 양성과 증원이 요청된다.

3. 양계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전장에서 우리나라 양계산업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이 곧 경쟁력제고의 대책이 될 수 있으나 경쟁력강화의 직접적인 방안은 생산비절감에 따른 대응방안이 대단히 중요한 과제이다. 생산비절감 방안은 첫째, 생산성을 높여서 닭으로부터 생산비절감 효과를 찾아내는 방안과, 둘째는 생산에 투입되는 각 요소와 생산단계별로 생산비를 절감하는 경영합리화 방안이며, 셋째로는 생산된 달걀과 육계의 부가가치를 높여 소비자로부터 생산비절감 효과를 찾아내는 방안이 있다.

(1) 채란계와 육용계의 생산성과 생산비를 비교해 보면 표1과 같다.

채란계에 있어서는 산란수가 미국에 비하여 93% 수준이며 계란생산비는 165%로써 생산효율이 떨어지고 있다. 산란수 저하 원인은 농가의 사양관리 기술수준이 낮고 시설의 낙후성 때문이며, 생산비가 높은 것은 병아리값, 사료

표1. 채란계 및 육용계의 생산성 비교

항 목	국 가	한국 (A)	미국 (B)	A/B
○채란계 (90)				
산란수(개/년)		265	285	93%
사료 요구율(%)		2.4	2.2	-0.2kg
계란생산비(원/kg)		867	527	165%
○육용계 (90)				
7주령 출하체중(kg)		2.4	2.8	86%
사료요구율(%)		2.2	2.0	0.2kg
생체생산비(원/kg)		983	422	233%

값 등 투입자재가 비싸고 노동효율이 낮기 때문이다. 육계에 있어서는 생산성과 생산비 모두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는데, 주요 원인은 채란계 분야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기술수준의 미숙과 시설의 낙후성 그리고 투입원자재가 비싸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양계산업이 안고 있는 여러가지 입지조건을 경쟁상대국과 생산조건을 따져 볼 때 어느 하나 유리한 조건을 찾아 보기가 힘들다. 그러나 실망할 필요는 없다. 국가간의 생산성 비교에서 불리하다고 해서 전체 양계농가가 다 뒤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양계농가의 중상위급 양계기는 생산성에서 미국 수준과 대등하거나 높은 기술수준을 보유하고 있으나 계란생산비와 육계생산비는 30~40% 높은 것이 사실이다. 이를 극복하는 길은 양축가 하나 하나가 최고의 기술과 과학영농으로 생산성을 최대한으로 높이고 투입되는 생산요소를 최소화하여 경비절감을 할 수 있는 경영기법을 개발하고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비용절감 효과를 찾아내는 데는 양계분야 관련산업들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키고 운영효율을 높여야 할 것이다.

(2) 경쟁력제고를 위한 관련산업의 유기적 결합과 운영효율 향상이 요구된다.

국제경쟁력이란 최종상품인 달걀, 닭고기가 최종 소비단계에서 가격과 품질면에서 소비자 선택에 영향을 미치며 소비자의 선택은 가격과 품질에 따라 한번의 의사결정으로 결판이 나는 것이다. 따라서 생산에서 최종 소비단계에 이르기까지의 각 단계별 하위산업의 유기적인 결합으로 가격과 품질면에서 경쟁력을 강화시키

중계·부화업

+

육계사육업

+

사료업

+

동물약품업

+

도계업

+

가공유통업

⇒

닭고기 경쟁력

는 방안이 요구된다.

예컨대 육계산업의 각 단계별 하위산업의 경쟁력 모식도를 제시하면 생산단계에서 최종소비단계까지 최소 6가지 단계로 구분되며 이들 단계별 관련산업들이 유기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결합 운영된다면 육계의 생산비와 닭고기의 가격에서 경쟁국 보다 40~50% 비싼 것은 어느정도(20~30%) 좁혀질 수 있을 것이다. 양계산업 관련업체의 유기적인 결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관련산업의 참여 제한 없이 조직의 재편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관련규제를 완화해 주어야 할 것이다.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 협조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기풍과 분위기 조성 없이는 양계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4. 맺는말

개방화, 세계화 시대를 맞으며 우리는 국내 외적으로 급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러한 변화속에서 어떠한 생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골똘이 생각할 때가 온 것이다. 막연히 어떻게 되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이나 요행을 바라고 사는 시대는 지났다. 급변하는 시대에 적응하는 사람, 기업, 국가만이 생존할 수 있다는 새로운 사실과 무한경쟁시대라는 냉엄한 현실을 똑바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외국의 값싸고 질좋은 달걀, 닭고기가 우리네 안방에 침범해 들어 올지 예

측할 수가 없는 것이다.

1944년도 일본의 닭고기 수입량은 44만4천톤이며 이중 중국산 닭고기가 12만7천톤(28.7%)으로 제일 많고 다음이 미국산이 12만2천톤(27.5%), 태국산(25.6%)순으로 되어 있다. 2~3년전만 해도 태국산 닭고기 수입량이 36~38%를 차지하여 제일 많았으나 중국산 닭고기에 밀려 나고 말았다. 중국의 육계산업은 태국에 비하여 인건비, 사료비, 기타 생산조건이 유리하기 때문에 일본시장을 점령하고 있던 태국을 밀어내기 시작한 것이다.

이와 같이 세계는 단일시장으로 변하고 언제 든지 유리한 시장만 있으면 침입하는 수입품이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쇠고기 수

WTO체제 출범 이후

양계산업이 나아갈 방향은

소비자가 원하는 최고의 물건을 값싸게 만들어 공급하는 것이다.

오래 되고 더러운 달걀은

아무리 값이 싸도 소비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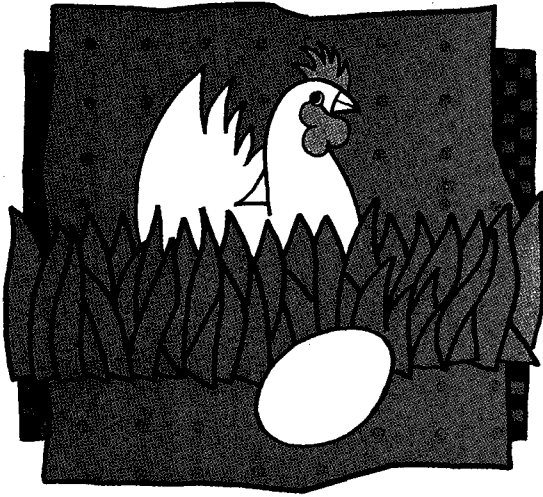
사먹지 않는 시대가 된 것이고

신토불이(身土不二)를 외친다 해도

값싸고 질좋은 수입 닭고기가

있다면 머지않아 사먹게

되는 것이다.



입품에 대한 한·미간 협상에서 지난 7월 20일 냉장·진공포장 쇠고기의 유통기한 연장이 타결되어 수입품의 국내시장 잠식이 더욱 강해지고 있다.

WTO체제 출범 이후 양계산업이 나아갈 방향은 소비자가 원하는 최고의 물건을 값싸게 만들어 공급하는 것이다.

오래 되고 더러운 달걀은 아무리 값이 싸도 소비자는 사먹지 않는 시대가 된 것이고 신토 불이(身土不二)를 외친다 해도 값싸고 질 좋은 수입 닭고기가 있다면 머지않아 사먹게 되는 것이다.

위기는 바로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슬기를 모아 난국을 극복하는 양계인이 되고자 노력하는 데서 살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축산의 정도(正道)에는 요행이나 묘수가 없으며 오직 성실하고 연구하며 새로운 방법을 개척하는 데서 성공을 기약할 수가 있다.

우선 경영목표와 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과 용기 있는 실천 그리

고 경영실적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통하여 경영을 개선하면서 새로운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양축가는 지금까지는 생산만 열심히 하면 된다는 소박한 사고 방식에서 탈피하여 2차, 3차산업을 경영한다는 생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연구와 장사꾼이 된다는 생각이 필요하다.

앞으로의 채란 양계산업은 크게 2가지 유형으로 발전될 전망이다. 그 하나는 경영효율을 최대로 올릴 수 있는 규모로 확장하는 것으로 30,000수 단위 계사를 10동을 보유하고 시장에서 요구하는 달걀을 구색을 맞추어 일정량을 항상 공급할 수 있는 체제로 운영하는 방식이다. 다른 유형은 가족단위 전업농가로 20,000~30,000수 규모로써 부가가치가 높은 특수란을 생산하여 직판하는 모형이다.

육계산업은 계열화 또는 통합경영체제로 발전되어야 하며 경영주체나 계약생산 농가간에 불신을 씻고 신뢰성을 바탕으로 계열체제를 구축하며 생산단계별 관련업체간의 유기적 결합과 운영효율을 향상시킬 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농장경영에서 적당히 대강 대강 잡고 넘어가는 식의 운영을 해왔다. 앞으로는 모든 생산단계에서 치밀한 계획하에 정확히 그리고 반드시 시행하는 데서 질병으로부터의 피해를 예방하고 부실운영에서 오는 손실을 막으며 정교한 진단으로 운영을 개선하여 경쟁력을 가지는 사업으로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이다.

국제경쟁력은 양계가 개개인이 또한 양계관련업체 하나 하나가 경쟁력을 가질 때 한국양계산업은 생존할 수 있을 것이다. 